

광주 무대 미술가 이현

언제부터인가 광주에서 연극 작품이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무대 미술가 이현. 공연 스텝, 특히 무대 미술 스텝이 거의 없는 지역 연극판에서 이 씨의 존재는 금방 눈에 띄었다.

이현(38)씨는 배우 출신이다. 조대 이공대 이랑극회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했다. 열악한 학교 극회에서는 대부분 무대 세트도 직접 만든다. 배우도 하며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했다. 미대 지망생이었던 그는 무대를 스케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면 즐거웠다. 실력 발휘를 한 건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연극 '철수와 만수'였다. 작품 속 주인공 공들은 고층 빌딩 간판쟁이들. 만수 역을 맡은 그는 직접 간판을 그려가며 이야기를 이끌어나갔다. 최적의 주인공이었다.

프로 생활은 극단 '파랑새'에서 아동극부터 시작했다. 푸른연극마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도 공연하고 '도깨비 극단'을 창단, 활동하기도 했다.

군대 제대 후 2000년부터 패밀리랜드 공연팀에 들어가 상설 공연 메인 무대 등을 도맡아 제작했다. 싱싱보드, 사막의 폭풍 등 패밀리랜드 놀이기구 공간의 그림도 그의 작품이다.



이현씨가 무대미술을 맡은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의 공연 모습.

패밀리랜드 놀이기구 공간 그림 그리고 광주 연극 작품 무대 대부분 직접 제작 다양한 직업으로 전국 떠돌았지만 이젠 지역 공연예술 발전위해 후배 양성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대는 떠나지 않았다. 배우로서, 무대 미술가로서 꾸준히 작품에 참여해왔다. 무대 미술가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2002년 극단 터의 '꽃마차는 달려간다'였다. 이후 매년 무대 미술가로 3~4 작품, 연거푸 1~2 작품에는 함께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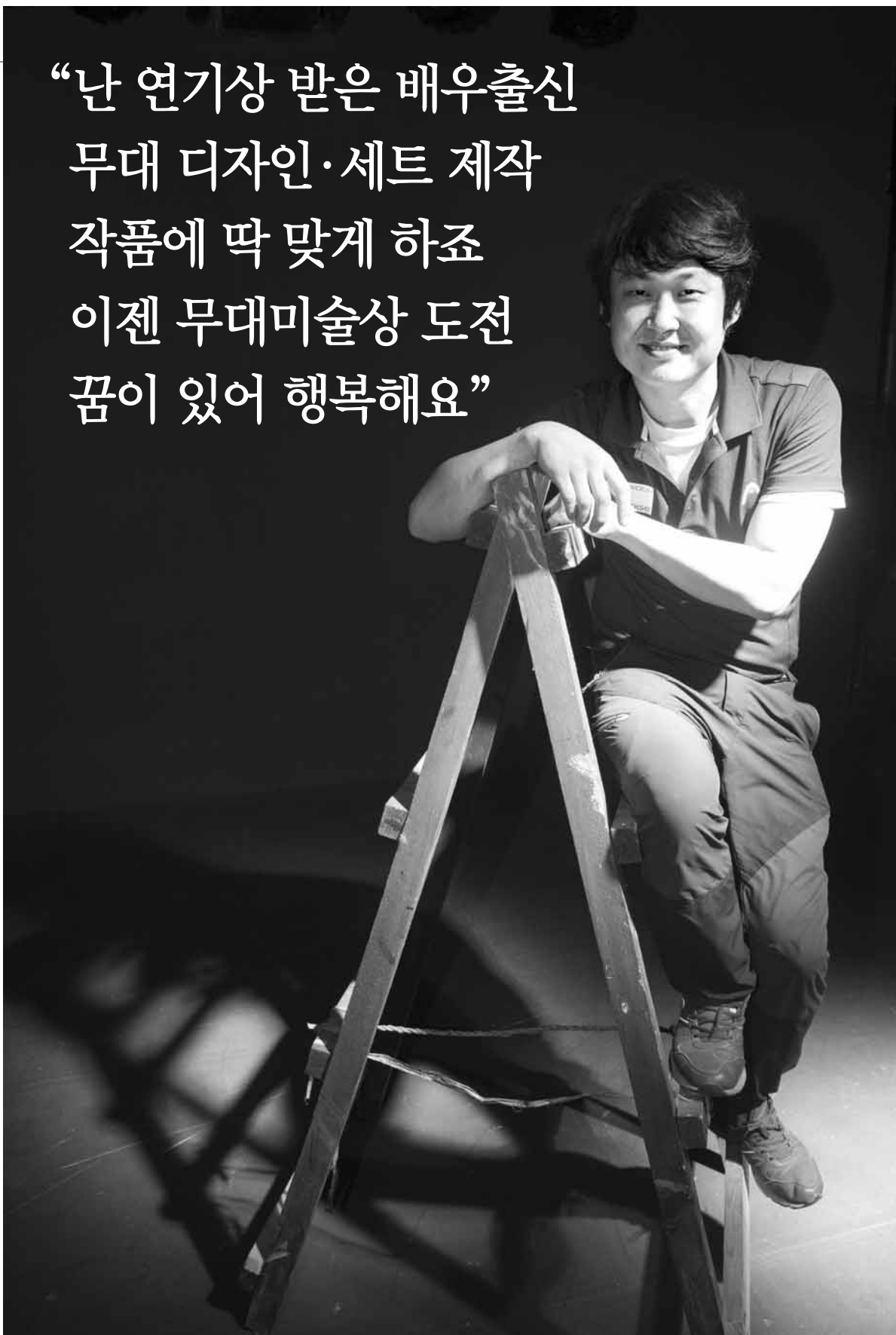
2012년 '네모디자인'을 설립한 후 작품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아예 패밀리랜드를 그만두고 무대 제작에 올인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30여건을 진행했고 올해까지 모두 80여편을 작업했다.

이 씨에게는 무대미술가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무대 디자인과 세트 제작을 함께 한다는 점과, 배우 출신이라는 점이다.

"제가 직접 무대에 서는 배우 출신이라는 게 세트 제작에 큰 도움이 돼요. 제작자 입장에서 뿐 아니라 연출자, 배우 입장에서 작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배우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죠. 뼈뼋이 문이 열리는 장면이라고 하면 그 문짝이 어느 쪽으로 열리느냐에 따라 감정을 달리지거든요. 또 무대 디자인과 그 디자인에 따라 세트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데 훨씬 효율적이죠."

올해까지 총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광주시립극단 '전우치', 극단 좋은 친구들의 창단 작품 '나무는 서서 죽는다' 등에 참여한

“난 연기상 받은 배우출신 무대 디자인·세트 제작 작품에 딱 맞게 하죠 이젠 무대미술상 도전 꿈이 있어 행복해요”



던 이 씨는 하반기 조대극회 합동공연 '오장군의 발톱' 등의 세트도 제작할 예정이다. 광주 학생연극제에서는 재료 값만 받고 재능기부를 하고 무엇보다 지방 연극계 사정이 뻔한 걸 잘 알기에 품앗이 개념으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는 타 지역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혔다. 부산 대표 극단 '에저포'와 '영도 포차', 대전 극단 금강의 '우주 단칸방에서 나를 부르다' 등에 참여했고 강숙자 오페라 라인의 '조인종' 세트를 맡는 등 장르도 확장하고 있다.

"선배들의 격려가 제일 큰 힘이 돼요. 내가 지역 연극 무대 미술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격려가 과분하지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게 아니라 혼자 한발 한발 만들어가다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또 새롭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니 내 나름의 노하우와 이론도 생겨요. 지나치는 쓰레기도 재료가 되죠. 무공무진해요. 건축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론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어 상명대 대학원 디자인학

과에 편입했던 이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후배 양성이다. 지역 연극판이나 공연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의지를 갖고 있는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가끔 찾아오기는 하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무대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로 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저라고 왜 서울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일하고 패밀리랜드에서도 일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졌는데 무대미술을 하려고 한바퀴 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 꿈이 이루어져 행복합니다."

그는 배우로서는 연극제에서 연기상을 받았는데 아직 무대미술상은 받지 못했다고 상도 받아보고 싶다고 웃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름다운 가곡 아카데미’ 회원 모집

광주교대 평생교육원  
정원 15명...28일까지

광주교대 평생교육원이 오는 28일까지 '아름다운 가곡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한다. 소프라노인 금혜민 광주 콘서바토리아 예술원장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가곡 아카데미는 9월5일부터 12월26일까지 매주 1회, 1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가곡 아카데미는 기초발성법을 비롯해 이태리, 독일, 한국가곡 등을 배

우면서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다. 또 올바른 호흡과 발성법, 가곡을 중심으로 한 발음교정, 곡의 음악성을 살려 노래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강의가 끝나면 회원 연주회를 개최한다.

한편 금혜민 지도강사는 수료 회원들과 함께 '아름다운가곡 중창단'을 결성해 재능기부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정원은 15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ec.gnue.ac.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520-4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1일~내달 7일 광주시민인문학 24기 강좌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광주 시민인문학이 24기 강좌를 연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한국문학, 중국역사, 일본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다. 월요일은 최창근(국문학) 박사가 "자유"의 경계를 가능케 하는 몇 가지 발상들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화요일은 이영란(중문학) 박사가 "이편전쟁에서 신해혁명까지를 조망하다"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눈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윤스터디를 하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해영(일문학) 박사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르상티망의 미학',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2'를 주제로 강의한다.

SEMI강좌(토·일 오후 2시)는 '오타쿠 위러의 무비토크 명화여 다시 한 번!', '일상 자급자족프로젝트-연극, 콘서트, 미술, 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 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청년문화허브, '청년문화' 활동가 모집

'청년문화허브'가 오는 29일까지 동료 활동가를 모집한다.

청년문화허브는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기획단체'로 문화, 소셜디자인, 청년문제, NGO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모집 인원은 문화사업팀 3~5명으로, 20~40세 사이면 지원할 수 있다. 문화기획과 비영리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 허브는 올 하반기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예술극장 공연작품 제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크라우드 소싱 고민 상담소' 프로젝트, 청년교류프로그램 '유용자적 문화살롱', 마을만들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 까지로, 단체 상황과 개인역량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lturehub.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415-35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NAVER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죽자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公認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기)	광주교육대학교(12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10: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10:1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배우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행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등급-사범배우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650-3582~4 -지도교수(선선방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선방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랑새 바깥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개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